제1계명 속에 들어있는 대반전

(에스더 8:1~17)

3.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4.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5.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6.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 당함을 차마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차마 보리이까 하니
7.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개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하므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8.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제1계명 속에 들어있는 대반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제1계명 속에 들어있는 대반전'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말씀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으로 섬길 때에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상황이 준비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2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계명과 율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모든 율법은 다 지켜질 수 있습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은 구실을 하므로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제1계명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3~14절에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쁨을 주시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하늘 아버지로 인한 기쁨이고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기에 곧 영생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제1계명의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구분하는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승천 사건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1계명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복음사건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이고 그 결과로 주님이 누리시던 기쁨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됩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내용은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선민 됨이 말살위기를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여러 종족의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던 동안에 선민 됨은 말살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됨을 구출해내시기 위하여 선민을 말살위기에 몰아넣으셨습니다. 선민 됨의 말살위기를 맞게 하심으로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아의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 선민 됨의 자아의식에 걸맞은 핵심은 바로 제1계명의 준수였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선민은 기쁨의 이유가 다른 자들입니다. 기쁨을 줄 것이라고 믿어지는 대상은 내 눈 앞에 있는 자녀나 손에 쥔 돈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라는 점이 선민 됨의 핵심이고 타민족과의 차이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대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민 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제1계명이 지켜져야만 하고, 제1계명이 지켜진다는 것은 오직 기쁨의 이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반전이 필요합니다. 대반전이 없는 제1계명의 준수는 제대로 된 것일 수가 없기 때문에 본문은 그 대반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인지상일인지하의 위치에 있으면서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하만은 물거품이 사라지듯이 순식간에 지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극적인 대반전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반지까지 포함해서 하만이 누리던 모든 지위는 모르드개가 차지하게 되고, 그의 모든 물적 인적 재산들은 에스더의 것이 됩니다. 인적 재산은 그 당시에 제도적으로 노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이 막대한 재산의 관리자로서 모르드개를 임명하는데 어마어마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상황이 대반전을 이루는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러한 질문이 필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왕 앞에서 에스더의 또 한 번의 간절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간구가 필요했던 이유는 127도로 나누어져있던 대제국 페르시아에는 하만에 의해서 작성된 유대인 멸절을 내용으로 하는 왕의 인장이 찍힌 기존의 조서가 퍼져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법에 따르면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는 절대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스더의 간구를 보면 왕으로 하여금 유대인 말살의 내용이 담긴 조서의 내용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왕은 그 페르시아의 법에 따라서 에스더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 요청을 다른 식으로 들어주게 되는데 이미 반포되어 있는 조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무효화하는 새로운 조서를 만듭니다. 하만이 주동이 되어서 만들었던 기존의 조서 내용을 무효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만들도록 모르드개에게 왕의 인장반지를 넘겨줍니다.
유대인에게 생명보호권을 발동할 권리를 허락하여, 유대인을 멸절하기 위해서 12월 13일을 기다리고 있었던 대적세력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조서를 내렸던 것입니다. 이 조서에 의해서 모든 지방 관리들은 두 번째 조서에 뜻을 같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유대인들을 말살하려던 자들을 거꾸로 말살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두 조서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역사적 상황자체를 비유로 삼아 복음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주동이 되어서 전국에 반포된 조서는 선민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어진 대로의 상황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은 선민 됨에 있어서 절대로 우호적이거나 유리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제1계명을 지키는 것이 선민 됨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데, 본문과 같은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1계명은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대반전의 역사가 일상화되지 않는다면 세상은 선민 됨을 끝없이 적대시하고 말살하려는 경향을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의 조서가 비유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제1계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함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의 열매를 동반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데 기쁨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반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라는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사랑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5~3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반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대반전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목숨을 주셨고 부모님을 주셨고 배우자를 주셨고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집과 재산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그것들에서 기쁨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민 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할 가족이 있다는 사실은 적대시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선민 됨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얻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내게 주어진 상황으로부터 기쁨을 얻으려 하는 것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연적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대상들을 원수 취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대반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의 말씀에 이어 37~39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자녀가 잘되면 기쁘고 잘못되면 슬퍼하는데 기쁨의 이유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만을 참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자녀조차도 원수로 취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끼던 자녀가 원수로 바뀌는 대반전이 일어나야만 제1계명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1계명이 수행될 때에 선민 됨은 말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비롯한 소중한 가족을 주신 이유는 그렇게 귀하고 좋은 가족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기준을 제시해주신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를 주신 이유는 단순히 자녀를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차성을 가지는 사랑의 특성상 동시에 두 대상을 취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우선시한다면 자연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녀 사랑을 위한 것으로서 종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다섯 개만큼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여섯 개만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나서, 자녀에 대한 관계조차 하

나님에 대한 사랑을 위한 종속 관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업을 주셨는데 이제까지는 사업에 있는 힘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1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전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쏟아왔던 사업보다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민 됨은 말살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업과 가족과 명예나 외모가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기쁨을 준다고 믿어지는 대상들이 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과 연합하게 된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은 죽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며 나의 기쁨의 근거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부활한 자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승천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은 하늘에 올라간 효과를 그대로 느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도록 하신 복음 사건입니다.
이 복음 사건을 받아들여서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것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까워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하여 대반전의 관계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기뻐하려 했던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대반전이 일어나서,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제1계명의 준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서 버렸던 것과 같았던 모든 문제는 창조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제1계명은 십자가를 통한 대반전이 일상화 되지 않으면 준수될 수 없습니다. 그 대반전을 일상화하여 제1계명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바로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요지를 담은 메시지가 성경 어느 곳에나 있음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대반전이 생활화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